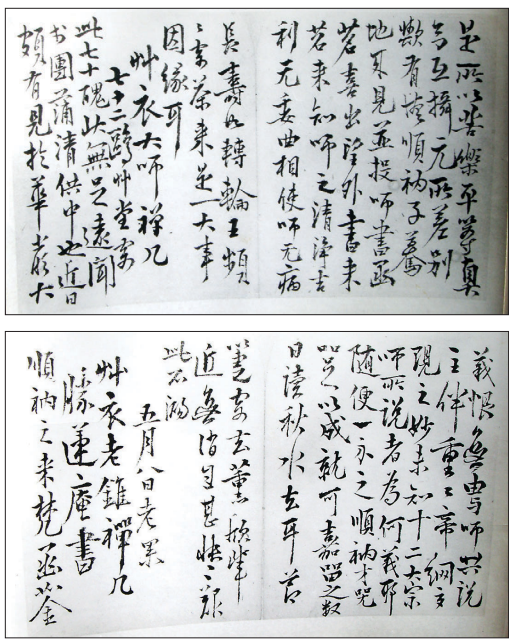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화엄의 묘리 못 밝혀 안타깝습니다”

오월 단오절이 지난 후, 추사는 초의에게 부채를 보낸다. 이 부채엔 담담한 선미를 드러낸 추사의 시 한 수가 적혀 있었을 터이다. 귀향길에 오른 순 스님은 편지와 함께 단오 부채를 초의에게 전해 주었다. 단오절엔 임금이 신하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친한 벗 사이에 부채를 선물하는 아름다운 풍속이 있었다. 이 단오 부채엔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식혀 주려는 속 깊은 사람이 묻어있다. 지금이야 이런 풍속이 거의 사라졌지만 다시 회복해야 할 아름다운 풍속이기도 하다. 한편 수일을 추사 덕에 머물다 돌아간 순 스님은 가을 물을 계산하여 돌아갈 겁니다 라고 하였다. 그는 추사와는 오래 전부터 교류했던 인물인 듯하다. 특히 추사는 순 스님을 ‘사람 됨됨이와 기량은 빈틈이 없어서 도를 이루기에 족하니 칭찬할 만하다고 극찬하였다. 그리고 편지의 하단에 5월 8일이라는 것과 ‘칠십 못난이가 보냅니다 라는 연구가 편지가 1855년 5월 8일에 쓴 것임을 나타낸다. 이 편지는 다음과 같다.



추사친필 도판

문이 필요했던 셈이다. 추사는 초의와 이런 내용을 토론 할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고 하였다. 특히 화엄의 큰 뜻인 ‘주체와 주체에 종속되는 이치와 겹겹이 이어지는 인다라망(因陀羅網), 교차되어 나타나는 묘리가 (그렇게 된) 연유를 밝히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쉬웠던 그였기에 초의의 안목은 그를 교리의 피안으로 이끌어 주는 도반이었다. 추사가 말한 12대 종사의 뜻은 무엇인가. 화엄의 교리에 대한 추사의 의문은 끝없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화엄의 본지가 무엇인지도 더욱 그를 심문(審問)으로 이끈 화두였다.

따라서 그가 초의에게 ‘십 이대종사가 말한 바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라고 거듭 물었던 터이다. 더구나 멀리 있는 벗의 수행은 그에게도 커다란 관심사요, 궁금함이었다. 추사는 초의의 소식이 못내 궁금했던지, 맑고 깨끗한 공양 중에 있음을 멀리서 듣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아울러 자신에게 차를 보내주던 자흔과 향흔의 근황도 궁금하던 그였기에 이들의 ‘소식을 듣지 못해 매우 섭섭하’ 단다. 늘 자신에게 차를 보냈던 이들에 대한 추사의 사랑은 식지 않았다. 당시 추사는 칠십이구초당(七十二鵲巢堂)이란 호를 사용하였는데, 도교의 <<선경>>에도 칠십이는 신선이 사는 선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최준호의 연구로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70이 된 추사는 이미 선경에 사는 노인으로, 마음 가는 대로 하여도 결함이 없었던 ‘중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의 경계를 노닐던 도학자요, 신선이었음이 분명하다.



박동준(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초의대사선계(禪記)에 칠십이구초당에서 이 칠십 못난이가 보냅니다. (그대)단표와 맑고 깨끗한 공양 중에 있음을 멀리서 듣기에는 부족합니다. 요즘은 (화엄경)을 읽고 있는데, (화엄의)큰 뜻을 그대와 함께 말하며, (화엄의)주체와 주체에 종속되는 이치와 겹겹이 이어지는 인다라망(因陀羅網), 교차되어 나타나는 묘리가 (그렇게 된) 연유를 밝히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십 이대종사가 말한 바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방편대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순 스님의 사람 됨됨이와 기량은 빈틈이 없어서 도를 이루기에 족하니 칭찬할 만합니다. 수일동안 머물다가 가을 물을 계산하여 돌아갈 겁니다. (순 스님

편에)단오절 부채를 보냅니다. 향흔과 자흔들은 근래 소식을 듣지 못해 매우 섭섭하고 섭섭합니다. 간신히 여기에서 졸업입니다. 5월8일 노과(師衣大師禪記)七十二鵲巢堂寄此七十鵲狀 無足遠聞於團蒲清供中也 近日頗有見於華嚴 大義恨無由與師共說 主伴 重重帝網 交現之妙 未知十二大宗師所說者 爲何義耶 隨便一示之 順納才器嚴足以成就 可嘉留之數日 讀秋水去耳 節 寄去 薰欣近無消息 甚 嘆此不揚 五月八日 老果

당시 추사는 ‘화엄경을 읽고 있다. 하지만 교학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화엄경의 심오한 경지는 조선 후기 대학자였던 추사라도 초의와의 담

“평생 포교 조언... 불법 있어 행복해요”

전천후 포교사 이옥천 씨

1944년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소학교가 싫었던 소년은 중종 학교를 빼었다. 시장 골목을 전전하며 각석이 타령을 구경했고 세상 이곳 저곳을 둘러보며 하루를 보냈다. 포교가 길면 밝힌다고 했는가? 소년은 결국 집안의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들려버리게 된다. 걱정을 하는 어머니와 할머니에 반해 서당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학교에 가지 말고 서당에 나오라고 했다. 한학을 배웠고 남는 시간에는 할머니가 세운 절에 가서 시간을 보내며 사찰 문화를 체험했다. 이듬해 해방이 되고 다시 학교를 다닐 때까지 소년은 유교와 불교 문화를 두루 두루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옹화 이옥천 포교사는 전주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부터 불교문화를 몸으로 익히면서 자랐다. 그는 이후 대학공부를 위해 상경, 서울에 자리를 잡으면서 한국불교 현장에서 40년 전천후 포교사로 활동하며 불교계 안팎에서 전법을 이어오고 있다.

교 객같이 많이 남아 있던 곳이 원불교예요. 그때 반야심경 등을 공부하면서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오고간다는 진리를 알았어요. 그렇게 공부 가 되니 가족 문제를 인정하게 됐죠”

문서 포교의 초석을 다지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전국불교신도회 기관지 <법륜>지의 창간 멤버로 입사하면서 불교 포교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전국신도회의 기관지였던 <법륜>은 당시 불교계 최초의 월간지라고 말할 수 있다. 1970년도 이씨는 <법륜>의 기자로 입사해 취재 편집 등의 일을 맡게 된다.

“지금이야 메일이 있어 원고를 받기 좋지만 이 절 때 절이 단체 저 단체 원고를 받으러 쫓아다녔어요. 당시 18개 종단이 있었는데 <법륜>은 전 종단을 아우르는 잡지였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는 삼성의 하이빙철 회장을 취재 간 일이에요. 당시 이 회장이 사카린 밀수 사건 때문에 사회에 지탄을 받았는데 이후 참회의 뜻으로 사회에 큰돈을 환원해 화제가 됐어요. 취재 당시 저는 사회 초년병이라 많이 긴장했죠. 그런데 당시 편집위원 중 한분이었던 스님이 담담하게 말하고 보시고 회향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써보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무사히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법륜>은 이후 후원자의 운영비 단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폐간을 맞는다. 1972년 그는 친구가 자문을 투자하고 본인이 편집주간을 맡아 ‘창간사’라는 출판사를 열고 불교교양 서적을 출판하게 된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초등학생용으로 쓴 원로시인이자 불교학자 박희선 씨의 <석가모니부처님>, 서경보 스님의 <불교사상 교양전집> 등을 펴냈다.

불교는 늘 내 삶과 함께였다

<법륜> 잡지 창간에 동참한 것이 최초의 불교계 일이었어요. 이후 불교 출판업에 꾸준히 종사해 왔고 포교사 일을 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불교 포교에 매진해 왔죠. 뭐 그렇다고 제가 얼굴을 내놓고 무슨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어디 어디 수장이다 이렇게 내세울 직함은 없어요. 뭐 그럴 기회를 만들면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 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죠. 그러다 보니 평생 불교계의 조언으로 살았네요. 허허.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세상에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후회도 후회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행복한 사람입니다.”

50년 불교계 일을 돌보며 살았다는 그는 겸손했다. 하지만 그의 포교 이력은 화려하다. 조계종 전국신도회 조직과 조계종 서울 포교사단 창단운영 등에 기여한 것을 시작으로 군법당과 교도소 포교, 인덕원 서울 노인복지관 도우미 봉사 등을 이어오면서 불자로서 나누는 삶을 살아왔다. 특히 그는 불교종합 교양 잡지 월간 <법륜> 창간 멤버로 문서포교사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또한 한일불교친선교류법회를 결성해 10여 회에 걸쳐 태평양 전쟁 한인 희생자 위령전도장에 동참해 오고 있기도 했다.

이렇게 불교계의 일을 꾸준히 이어온데에는 그의 집안 배경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어린시절 전주에서 보냈다. 전주 이씨 집안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비단장사를 해서 성공한 큰 부자였고 할머니는 시집을 때가 저온 지참금으로 전주에 대승사라는 절을 지을 만큼 재력이 집안의 딸이었다.

“당시 할머니가 세운 절은 당호가 10체가 되는 큰 절이었어요. 스님을 모셔 수륙재를 열기도 했고 저는 부처님오신날 즈음에는 연꽃을 보살님들과 함께 만들기도 했어요. 어산법매 인간문화제 일용 스님도 저희 절에 자주 오셨는데 어린 저를 업어주기도 하셨죠. 이후 막내고모가 출가를 하셨는데, 할머니는 고모를 위해 관음선원이라는 절을 세우주기도 하셨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모두 절에 쏟아부을 만큼 불심이 깊으셨죠”

이처럼 그는 늘 불교 가까이 있었고 불교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불교로 인해서 고달프기도 했다고. “일제 통치하에서 할아버지는 8년 동안 일제와 재산 싸움을 했고, 아버지는 독립운동 자금을 대주기도 했고 서당을 차려 한국역사를 가르치기도 하셨죠. 그러면서 집안 가세가 점점 기울었어요.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고 오로지 모든 재산을 불사에 쏟아 부으셨어요. 제가 대학을 갈 즈음에는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책 몇 권만 가방에 넣어 상경을 했죠.”

원망도 컸다. 특히, 유산을 한푼도 물려주지 않고 불사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할머니에 대한 원망이 상당했다. 그는 대학시절에는 친구들을 따라 원불교학생회를 들어가 교리를 공부하기도 했다. “제가 살던 전주가 원불교가 성한 곳이라 친구들을 따라 원불교학생회를 들어갔어요. 현재는 형태가 많이 변했지만 당시에는 불

월간 <법륜>지 창간 멤버로
도서출판 학수림 운영하며
불교서적 등 문서포교 매진

젊은층에게 불교정신 알리고자
28사단 연화사 지도법사 나서
금천종합사회복지관서 12년째
사회교육 불교강사로 포교 활동

이후 이 씨는 1988년 출판사를 자신이 인수하면서 학수림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현재까지 꾸준히 불교서적을 발간해 왔다. 학수림은 지금까지 126권의 책을 발간했고 그는 팔손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현재까지도 꾸준히 출판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서경보 스님의 출판사 일분삼장원의 편집주간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다. “스님께서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드렸어요. 스님의 원고를 교정교열하고 출판까지 도와드렸죠. 한 400권 스님과 책을 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불교정신> 출판, 조계사보 <가피> 창간 등에 꾸준히 기여하면서 불교계 크고 작은 출판 일에 일익을 담당해왔다. 이처럼 불교계 언론과 출판계에 꾸준히 종사해온 그는 그 기록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

그는 불교 언론지 수집가라는 특이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현대불교는 창간호부터 2002년까지의 신문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아놓았다. 불교신문은 80년 이후부터 모두 간직하고 있으며, 주간불교 법보신문은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고 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마다 나오는 신문 4종을 수십년 모았다고 하니 보관할 공간이 있는지 어떤지도 그저 걱정스러기까지 하다. 그가 이렇게 불교 언론지를 모으는 이유는 뭘까?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잖아. 절 집안 자료가 제대로 남아있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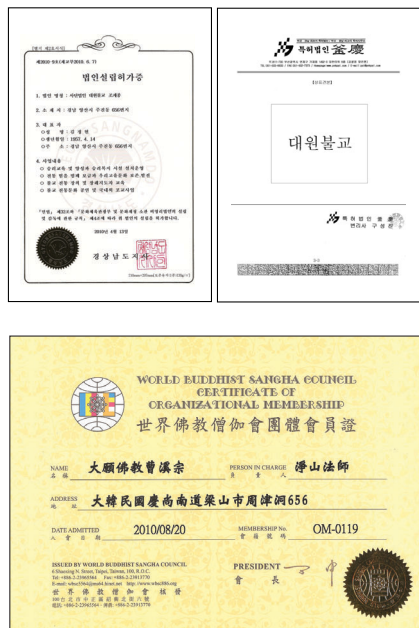
이옥천 씨는 92년부터 육군 제 28사단 전자대대 연화사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전법에 매진했다.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 입증 안내 ◆**
- 1) 입증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절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침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 010-3565-2462 हे오 원장 스님
 - 총무원 070-4187-4747
 - 중정예경실 055)364-4747
 - 2) 입증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정 청봉 석정산

(중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중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 중정실 의전실장 황정재)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 동아메일신문사 사장

원로회 고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회장 석무겸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총회 총회장 석덕오 부의장 석철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운오 재무부장 석법담 정보부장 석보각 행사부장 석지혜 사무총장 석초오	부원장 부원장 석용암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혜주 동원부장 석법원 의전부장 석근홍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철산	감시원 감시원장 석지명 부원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장 석우암 부원장 석법승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제 14기 영남(통도소리)범음범패 교육생명모임”

범음(훈소리, 길소리) 범패(강쇠, 북, 태징)

- 기초 2개월 - 도량서, 중성, 각단 예불, 불공, 시다림,
 - 고등 1년 - 중노릇 잘 하는법, 상주권공, 구병시식등, 천도제,
 - 전문 2년 - 시왕각매, 예수제, 영산제, 수륙제,
- (기초의식부터 ~ 전통전문분야등 범패의 모든 것)
개강일 : 2014년 3월 첫째주 금요일부터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옥천 포교사는 ... 1938년생으로 조계종 전국 신도회와 서울포교사단 창단 및 운영에 참여했으며 육군 제 28사단 전차대대 연화군법당 지도법사를 역임했다. 1970년 종합 불교 교양지 <법륜>의 창간 멤버로 활동했으며 도서출판 학수림의 대표로 문서포교에 매진해왔다. 현재는 금천종합복지관에서 매주 불교교리프로그램 지도를 맡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죠. 현대불교도 창간 이후부터 잘 모아 왔는데 2002년부터 조금씩 흐트러져서 조금씩 빠져 버렸어요. 그래도 틈틈이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안 공간 한 칸을 신문으로 채우고 있으니 가족들의 불만이 너무 심했죠. 타박도 많이 받았어요. 저 때문에 이사도 못 간다고요. 그래도 어떡해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는 그렇게 너털 웃음을 짓는다.

이웃과 나누는 일의 소중함

그는 2002년부터 금천종합복지관에서 사회교육프로그램 중 불교반을 운영하고 있다. 불교교리강좌와 역사 탐방을 12년째 이어오며 금천종합복지관 불교반 지도법사로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의뢰가 들어 왔을 때 거절하고 싶었어요. 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 하루만 가서 대충 수업해주고 퇴짜 맞으려고 했죠. 그래서 그냥 농담하면서 시간 때우고 왔는데 그쪽 불교반 회원들이 저를 꼭 법사로 데려와달라고 담당자들에게 부탁을 했대요. 이것도 인연이다 싶어서 그렇게 매주 1회씩 나가서 기초교리 등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꾸준히 활동을 하다 보니 불교반을 통해서 새로운 법열을 느끼게 됐어요. 좀더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인터넷 유머도 찾아보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육군 제 28사단 전차대대 연화사 지도법사로 시작한 군포교역시 그에게는 매우 특별한 활동 중 하나였다. 특히 초코파이를 박스 채로 가져가 병사들에게 나눠주면 최고의 간식거리로 칭송 받으며 법회를 이끌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좋은 법문을 통해 그들에게 법을 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절에 와서 법문도 들으면서 군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불교가 기록 불교에서 벗어나 젊은이들에게 불교의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발원했습니다.”

특히, 한 사병은 탈영을 할만큼 심각한 상태였는데 포교를 통해 무사히 군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한 사병이 우연히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제가 군법당 나와 보라고 권유를 했죠. 그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불자로 성실하게 군생활을 하게 됐어요. 주변에도 놀랄만큼 모범적인 사람이 됐죠.”

물론 그가 불교 포교 일선에 매진하는 동안 아내 조인경 씨는 마음 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제가 이렇게 불교일에 매진하고 있으니 아내가 사업을 하다가 집 한 채 값만큼의 빚을 졌어요. 이혼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때 제가 돌이켰어요. 남들은 아내를 위해 빌딩도 사주고 호강을 시켜주는데 나는 고생만 시켰구나. 이제와서 빚을 졌다고 이혼을 하면 되겠나 하고요. 이후 대필을 해서 그 빚을 3년만에 다 갚을 수 있었어요. 불법 만난 지혜가 여기서 발휘가 됐어요. 정말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나 자신은 못 보고 아내 빚만 볼 뻔 했죠. 제 아내는 그 존재 자체로 저에게 너무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감사하고 아내한테 항상 감사해요.”

40년 전천후 포교사로 활동해온 이옥천 포교사에게 불교란 무엇일까? 그는 불교는 자신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존재라고 말한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삶에서 부딪히면 나를 돌아보게 돼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잖아요. 세상의 진리가 불교에 다 녹아 있어요. 마음 하나만 잘 쓰면 모든 것들이 달라지죠. 물론 저는 늘 부족하고 아직도 무명을 못 벗은 중생이지만 부처님 말씀은 이 모든 진리를 증명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불법의 세계 속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늘 감사할 뿐입니다.”

이 씨는 80이 넘는 나이에도 아직 해보고 싶은 일이 많다. 자신에게 가르침을 준 108명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고 싶기도 하고 한국의 책으로 방대한 불교 가르침을 쉽게 풀어서 내고 싶기도 하다. 그는 이처럼 늘 불교 가까이 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교를 알리고 불교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스스로 조연의 삶을 자처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그가 늘 그 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불교는 늘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글=정혜숙 기자 bwjrs@hyunbul.com



1991년 조계종 서울포교사단 여의도 봉축 행사 사진

전법일기

‘원리전도몽상’ 전쟁공포심도 안녕!

군대에서는 요즘 휴한기 훈련이 한창이다. 대개 12월부터 2월까지 각 부대에서는 휴한기 훈련을 한다. 필자는 사단 예하 연대나 직할대가 훈련을 할 때마다 출정기나 야전종교의식 및 위문활동을 하곤 한다. 휴한기 훈련은 전의를 가정한 훈련이기 때문에 항상 무사히 훈련을 마치기 위한 기도와 더불어 적을 이길 수 있다는 용기와 전쟁의 공포심 극복을 위한 부처님 말씀을 들려준다. 오늘은 군에서 실시하는 훈련 시 장병들에게 하는 법문을 요약해서 실어본다.

부처님께서 반야심경에서 공포와 몽상을 여의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시다. ‘고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故無有恐怖 遠離顛倒夢想 究竟涅槃) 바로 이 구절이다. “마음에 어떤 두려움과 의심된 마음도 없이 거꾸로 된 꿈 같은 허망함을 떨리한 까닭에 마침내 열반의 참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

그렇다. 부처님 마음에 그 어떤 두려움과 의심된 마음이 없는 까닭에 깨달음을 성취 할 수 있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그 어떤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의 승리를 조금도 의심하는 마음이 없는 까닭에 우리가 바라는 그 결과를 성취 할 것이다. 나의 마음에서, 나의 한 생각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이루어진다.

우리는 적을 압도 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은 그 어떤 두려움과, 우리의 승리를 조금도 의심하는 마음이 없는 까닭에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성취 할 것이다. 우리는 적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으며 아군이 적을 압도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적을 압도하는 아군의 용맹함은 필승을 가져다 줄 것이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슨은 “두려움은



그림·박구원

언제나 무지에서 샘솟는다”고 했다. 스스로의 힘을, 스스로를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난다는 것. 지레 겁을 먹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아는, 무지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필요 없는 단어로 불과하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넋은 들뜬을 홀로 가다가 혹 두려움이 생기거든 여래, 부처를 떠올려라”고 말씀하셨다. 부처가 누구인가? 부처님은 복덕과 지혜, 용맹, 용기 모두를 원만구족 하신 분이다. 또한 부처님은 언제나 자비광명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빛을 비추주고 계시는 분이다.

“여래는 깨달으신 부처, 세존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곧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부처님께 우리 곁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느낄 필요가 없고 승리한다는 자신감만 갖고

있으면 된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향하여 수많은 고행과 고난을 겪으시던 중의 일이다. 보리수 아래서 수행 정진 하던 시간, 부처님의 눈앞에 깨달음을 성취를 방해하려는 마왕 파순의 80만 대군이 펼쳐진다. 이때 부처님께서 모든 적의 유희와 회유, 맹렬한 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어 여래가 되시었다.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마왕 파순에게 전한 음성 이 남아있다.

“나는 이미 세 가지 큰 두려움의 근본을 버렸나니,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니 때문에 약마 군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체의 모든 어둠을 버리고 지극히 깊은 깨달음을 증득했나니 너는 마땅히 스스로 사라져 가라!”라고 강력히 말씀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부처님과 같이 굳은 심지로 바로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몸과 마음을 오롯이 집중하여 임한다면 적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은 저 마왕의 80만 대군처럼 사라져 갈 것이다. 아직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남아있는 사람은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을 항상 마음속으로 되뇌어라.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나에게 어떤 두려움과 의심된 마음도 없으며 허망한 망상을 떨리하였다.”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대자대비로 무장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이라고 해보라.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부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기를.

여정 군승 법사(5사단 사령부 광복통일사)

불교국 각나라 승가회 대표들의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로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 의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전에 부끄러워 않는 불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실 각 종단 중정예하 총무원장님들을 법왕청 중앙정부에 모시고자 초대합니다

[2월 18일 화요일 11시 임시 각료회의 개최]

10월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의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위원회 출범식을 성대하고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동참해주신 대덕 큰스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정각회 국회의원님들과 불교국가 대사님, 미얀마 연방 정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축하사절로 종교성 부장관의 참석, 연방 승가회 회장님의 축사, 120여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의 동참 그리고 연합뉴스에서까지의 보도 등 전례가 없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세계불교법왕청은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여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중정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 추대 하고자 극비밀로 은밀하게 움직여 놀라운 큰 성과를 거두어 출범 일주년 무렵에는 장엄한 국제 추대 의식 행사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社團法人 世界 佛教 法王廳 세계불교 고승 및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 1080인 위원회 법왕청신하 소속 350여 종단 및 단체 총연합 협의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위원장 대승정 목탁 - 혜은 합장 02-733-5665. 011-229-6061



<2014년 (불기2558년) 주요 행사>

- 1. 각료 임명식 : 임명식 행사의 건 의견 청취
2. 출범핵심 각료 선정 (특명대사) : 중국,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일본 등
3. 대외 활동 홍보 및 고유 의식으로 중국 지장도량 및 관음도량 성지순례 및 단합대회 2014년 5월 9일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성지순례 및 임원진 단합대회 개최. 세계불교법왕, 이 회의에서 승왕 추대 명단 확정하고 취임식 준비에 따른 의견 청취. 세계불교 법왕청과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름으로 고승단 및 임원진 高僧, 대종사 품수 추대 의식 봉행. (경비 없음) 선착순 108명 접수
4. 법왕추대 의식 및 장소, 법왕청 준비.
5. 1080인 고승단 및 세계불교지도자 인명 대사전 발간 (경비없음)

『세계불교법왕청』이란 명칭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정식 등록 허가된 곳은 목탁스님이 주관하는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뿐입니다.